

사찰마다 선도단체 '발등의 불'

청소년 보호법시행...교계 관심 절실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불교계가 청소년 선도에 수수방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법회를 열고 있는 전국 사찰을 비롯해 불교청소년단체, 지도자모임, 복지시설 가운데 정교련 인천지부 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만이 이달 중순경 청소년보호법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을 뿐 청소년 선도 및 계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5년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해 청소년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교련 인천지부는 이달 중순 청소년보호법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사찰신도회와 해병전우회 등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유해환경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유해업소 자율정화 활동, 유해매체 및 물품 모니터, 세미나 및 토론회, 어머니 교육, 각 학교 지도교사 초청 간담회, 캠페인 등도 벌인다.

정교련 인천지부 유해환경감시단 이미경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 제정의 주역인 개신교의 경우 이미 대전 YWCA가 청소년보호법 관련 회보를 전국 청소년단체 및 학교에 발송한 것은 물론 세미나 캠페인 일정을 알리는 홍보물 배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

불교문화공간·심성교화프로 확대해야 "모두 내자식...바로 자라게 하자"

하기 위한 타종교계의 물밑작업 또한 활발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문화체육부 산하 조직으로 청소년문제에 관한 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이에따른 YMCA, YW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회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교계에서는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

이근후 신경정신과(이화여대) 의사는 "종교적 소양계발을 통한 청소년 심성교화는 다른 어떤 사책보다 효과적"이라며 "불교계 적극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 및 스님들

의 사고전환과 각 단체간 정보교류, 문화공간 확보, 심성개발 프로그램 마련이 과제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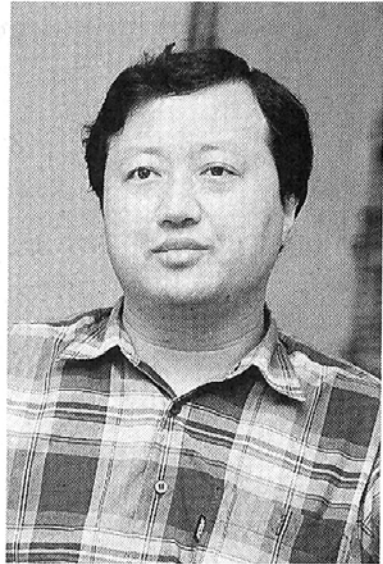
한편, 불교계에는 (사)청소년협회 파라마,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정교련 인천지부 유해환경감시단·청소년쉼터, 한국불교청소년범죄예방연맹 등의 청소년단체와 사찰 학생회, 교법사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 등 청소년지도자들의 모임이 있다.

도필선 기자

수여 기쁘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포교활동을 떠나갈 대한불교 한누리포교회가 5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교계최초로 창립했다. 한누리포교회는 1백 5만 장애인들의 권익사양,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박인철 초대회장에게 한누리포교회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다.

<편집자 주>



5일창립 한누리포교회 박인철 회장

"재가복지 펼쳐 장애인포교"

- 한누리포교회의 창립으로 장애인 포교가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년전 교직을 놓고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신문에 참여하며 이분야에 전념했지요. 그러면서 불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 한누리포교회는 우선 재가장애인포교부터 조직적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는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 형태입니다. 장애인중 80%가 지체장애인이므로 그들을 위한 도움은 미약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종교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포교는 사람의 문제인 만큼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장애인포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가장애인과 연결하는 작업도 할 것입니다.

- 한누리포교회 설립취지는...
▲한누리포교회는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하나의 세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 사회의 주인으로 소중함을 살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석주근스님을 비롯하여 각 종단의 지도자 스님과 명망있는 재가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음으로 한누리포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 한누리포교회의 장애인포교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집니까?
▲복지관이나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

- 한누리포교회의 주요사업 내용은?
▲3개월과정의 장애인포교대학을 개설하여 매기수당 20-30명에게 사회 복지 일반과 장애인 포교에 필요한 수화 점자교육 등 실무 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차적으로 장애인 권익보호운동과 범회양식개발, 점자 및 녹음도서 제작, 불교수화집 발간의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외도 직업훈련 및 자립작업장 운영, 장학사업, 장애인을 위한 공동법회 성지순례수련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김원우 기자

한-캄보디아 불교교류 '재다짐'

템풍스님 방한...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한국불교와 캄보디아 불교계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캄보디아와는 이미 미타종(종정 박암)과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남지심)와 교류활동을 벌여왔다.

6월 20일 방한한 캄보디아 승왕 템풍스님은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양국 불교간의 교류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월주스님은 캄보디아 불교종중을 위해 먼저 승려교육비(2천불)를 전달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템풍스님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불교계간의 교류가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에 고맙다는 의사를 표했다.

템풍스님의 이번 방한은 미타종이 96년 12월 한-캄보디아 불교교류 서명식 때 템풍스님의 요청과 6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캄보디아 오날라방 사원을 방문,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 것.

미타종은 96년 캄보디아 몽클반·사라왓사원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97년 2월 앙코르와트에서 봉행된 캄보디아 승려대회에 참석, 유학승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선우 국제승보공경회도 승려교육을 위해 93년부터 아나톤 사원의 강사님 교육비(1천불)와 캄중고아원(4백불)을 매달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캄보디아 불교계간의 불교교류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캄보디아 템풍스님의 방한은 공식적인 교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지금까지 일본 중국 등 대승불교권과 미국 유럽 등의 포교와 교류에 주력해 온 반면 정자 불교전통이 남아 있는 동남아 국가교류는 소홀해 온 한국불교 국제교류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근 기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3일 캄보디아 템풍스님께 승려교육지원금을 전달했다.

홍콩이 155년만에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홍콩이 '홍콩 차이나'로 바뀌기 전 날, 많은 홍콩인들은 기대와 불안 안고 사원을 찾았다.

"다시는 조국땅이 외국지배를 당하지 않고 홍콩과 중국이 잘 화합해 좋은 미래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도 계속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홍콩에서 불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8년부터이다.

'홍콩불교'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거사불교다. 1925년 결성된 거사들은 광명학교를 설립해 불교홍포에 기여했다.

1931년 홍콩불교학회가 창립됐다. 잡지 창간과 불경강의가 유행을 이뤘고, 신학단체도 결성됐다.

2차대전이 끝나고 중국에 공산정부가 수립되면서 대륙의 승려들은 홍콩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에 의해 홍콩불교는 발전의 계기를 맞는다. 홍콩불교를 '맨션불교'라고 부른다. 대지부족으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한 절이 많기 때문이다.

홍콩불교의 가장 큰 특색은 사회교육과 복지사업이다. 이러한 홍콩불교는 전문인력을 복원하면서 새롭게 기지개를 펴고있는 대륙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륙으로부터는 어떤 바람이 홍콩불교에 불어올까.

1972년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이 조계종 홍콩 총법원을 열어 교민교화와 한·홍 불교교류를 갖고있는 한국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世界一花를 지향하는 한국불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목어

홍콩 차이나의 불교

《홍콩불교사》에 의하면 그 이전까지 불교를 달하는 사람은 100명이 채 넘지 않았다고 한다. 이보다 훨씬 오래전 6조시대에 이미 홍콩 최고의 고찰 청산사가 세워졌고, 唐代에는 영도사가,明代 이후에는 관음사·능운사 등이 건립됐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불교는 '홍콩불교'라기 보다 '광둥불교'에 해당했다. 아편전쟁이후 영국지배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국의 광동성에 속해 별다른 특징이 없었기 때문이다.

1842년 남경조약이후 본국과의 정치적 단절로 홍콩은 중국과 다른

기 때문이다.

홍콩불교의 가장 큰 특색은 사회교육과 복지사업이다. 이러한 홍콩불교는 전문인력을 복원하면서 새롭게 기지개를 펴고있는 대륙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륙으로부터는 어떤 바람이 홍콩불교에 불어올까.

1972년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이 조계종 홍콩 총법원을 열어 교민교화와 한·홍 불교교류를 갖고있는 한국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世界一花를 지향하는 한국불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판전(장경각).

'97 문화유산의 해

나뭇결에 새긴 한국인의 마음결 7월 테마여행 - 해인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국보제32호)을 봉안하고 있어 법보총화로 불리우는 해인사는 802년 순웅과 이정 두 대사가 장전한 화엄실상종 하나입니다. 고려말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자 전민이 하나가 되어 불심으로 종교를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조성되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수많은 이름없는 각수들이 불경 한자를 새기고 절하고 또 한자를 새기고 절하고,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 구국과 평화를 염원하여 만든 팔만대장경은 우리 불자들의 영원한 자긍심 그 자체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판전(국보 제52호) 역시 경관보존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완전무결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절 이름 '해인'은 <화엄경>의 '해인삼매'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원 강원 율원 등을 모두 갖춘 총림 해인사를 찾으면 "자기 자신을 바로 보시다"라고 깨우침을 주시던 우리시대의 큰스님 '상철스님'의 사자후가 어느덧 메아리가 되어 가슴에 아로새겨집니다.

■ 참가 안내

○출발: 7월 27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인내: 최원식(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회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누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일약품

이 시대의 불자가 꼭 읽어야 할 불교 입문 필독서!!



일주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기도하는 법, 업과 운명과의 관계, 불자 예절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교에 대해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불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 어려운 불교용어에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놓았고 불·보살의 모습을 싫어 이해하기 쉽게 엮어 놓았다.
-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국판/윤지영 지음/256쪽/값 5,000원

※ 불교, 제대로 알기 — 일주문을 통해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궁금증 푼!! 오로지 대자유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산문에 든 지 30여년



묵묵히 구도의 길을 걷는 선승 석원연스님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와 깨달음의 이야기

나의 귀여운 딸, 민들레의 눈길은 진정한 불교의 모습에 접하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불경 속에 들어있는 불교가 아니고, 그리고 환개치는 승려들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 민들레의 인생살이 속에 스며 있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습니다.

— 지은이의 딸 중에서 —
신국판/석원연 지음/374쪽/값 7,000원

※ 전국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입니다. 지금 만나보십시오.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